

# “국비 확보 막바지... 비상한 각오로”

### 전북도, 국가예산 위룸 전략 회의 열고 최종 점검... 김관영 도지사, 릴레이 면담 통해 설득활동 전개

전북도가 29일 국가예산 위룸(War-Room) 전략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총 점검하고 막바지 전략을 가다듬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전개해 온 국비 및 부처 소통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막바지 국면에서의 활동방향 및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 실국이 맨투맨 방식으로 해당 상임위,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배가하고,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위룸(War-Room) 회의에서 “이제 예산 국면의 최종장에 들어섰다”며, “각 실국장들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맨투맨 방식으로 자기 분야에서 국회 및 정부 부처와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도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의 확보가 중



전북도는 29일 국가예산 위룸(War-Room) 전략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총 점검하고 막바지 전략을 가다듬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요하다”며,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열어낸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주 유의동 국민

의힘 정책위의장, 김만섭 기재부 제2차관과 등과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설득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본부에 설치한 위룸을 중심

으로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부산엑스포 불발, 전부 제 부족 때문”

### 윤 대통령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의 부산 유치 실패는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잘 자취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법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솔직한 심정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이 없이 저희는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를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다”고 했다.

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무산과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빗나간 것 같다”며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우리 민관은 정말 합동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제가 지휘를 잘못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제 부족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

# 현안 해결 등 통한 도민 복리증진 공로 인정

### 강동화 도의원, 전북도 인물대상 광역의원 의정 부문 ‘대상’

전북도의원 강동화(전주8) 의원이 29일 전라북도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2023 전라북도 인물대상 ‘광역의원 의정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한국신분방송인연협회, 한국외신뉴스, 국제뉴스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광역의원 의정활동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강동화 의원은 제9대~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제11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의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등을 통



해 전북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동화 의원은 “단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전북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이낙연 전 총리 ‘선 비명연대-후 신당 창당 모색’ 수순 밟나

##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새 국면... 향후 행보에 정국 요동

### 당장 창당 나설 가능성 적어... ‘다음 행보에 설명할 기회 있을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관하면서 내년 총선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비명(이재명)계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다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신당 창당까지 시사했다. 향후 행보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날을 세웠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이 대표가 사당화를 자초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연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연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연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며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너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인품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한 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최고 책임자가 졌지만 잘 싸웠다고 먼저 규정하는 것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지도부를 직격한 것은 비명계를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를 재개하려는 이 전 대표가 비명계를 안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비명계와의 연합 행보에 대해 “그분들과 상의하거나 한 일이 없다”면서 “단지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 원칙과 상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부인했다.

이 전 대표가 연합 행보에 대해 손사래를 쳤지만 비명계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학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측근들에게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에 대한 공천 확장이 현실화될 경우 총선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고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제

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지대에 대해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에 여지를 두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이낙연계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실천행동이 신당 창당을 선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당장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측은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고언을 한 것이다.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 “총선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다음 행보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인질에 잡혀있다”며 강성 친명 행보를 비판했는데, 이같은 상황이 계속 되면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탈당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보폭을 더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제3지대에 이 전 대표가 합류하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뉴스

# 김제시의회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28일,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제시의회 ‘미래농업 정책연구회’는 김영자 의장을 포함해 김승일 대표의원, 주상현 의원, 이병철 의원, 이정자 의원, 최승선 의원, 서백현 의원, 양운업 의원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3개월 가량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해 왔으며 의원들은 최종보고를 받

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등 활발히 보고회를 진행했다.

구양근 교수는 그간의 추진 경과 및 국내 스마트 농업 정책의 현황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스마트 농업의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제시 미래농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